

2015 협회 창립 70주년

제52회 전국도서관대회
52nd KLA General Conference

포럼 3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방향을 묻다”

2015년 10월 22일 16시 20분 - 17시

인천송도컨벤시아 전국도서관대회장 113호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2015 한글 창립 70주년

제52회 전국도서관대회
52nd KLA General Conference

포럼 3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방향을 묻다”

■ 발표 ■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올바른 방향과 방법

- 박소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이사장)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 작은도서관평가지표 마련 과정

- 박미숙(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정책기획팀장)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2015년 10월 22일 16시 20분 - 17시
인천송도컨벤시아 전국도서관대회장 113호

▪ 첫 번째

작은도서관 평가지표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박 소 희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이사장)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2-1 평가지표의 필요성

2-2 운영실태조사와 평가항목

2-3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제기

제3장 평가지표 개선 방안

3-1. 자체 평가의 틀을 우선 제안한다.

3-2 평가지표 구성을 위한 평가위원회 마련

3-3 평가와 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체계의 안정화

제4장 결론

제1장 서론

2015년 전국의 작은도서관은 5,000개¹⁾를 넘었다. 2004년 창의한국21 문화비전을 통해 밝혔던 “1만개 작은도서관, 이웃도서관 확충운동”의 성과가 50%를 넘어섰다는 의미이다.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독서인구의 저변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의 꾸준한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

2009년 작은도서관이 법률적 개념으로 정의 내려지고 2012년 작은도서관진흥법을 통해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현재적 측면에서 개소수가 늘어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수적인 확대와 더불어 작은도서관에 거는 지역 이용자들의 기대에 맞게 운영을 활성화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이다.

2015년 9월3일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있었던 도서관발전 대토론회 “국가발전과 도서관의 역할” 관종별 토론회에서는 대진대학교 이상복 교수를 통해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와 전망이 제안되었다.

발제를 통해 이상복 교수는 작은도서관이 양적으로 증가 한데에는 민·관의 관심과 노력의 결과이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통해 작은도서관 조성과 운영을 위한 계획이 설립되고 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 단체의 지원역량을 초과하는 작은도서관의 증가로 인해 부실 운영되는 사례가 늘어남을 지적하였다.

특히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부재와 관리·감독을 책임질 부서가 정확하지 못함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파행의 문제가 확대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 중 정확한 실태파악을 전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현 시점에서 작은도서관을 원래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노력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고 지원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평가지표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점과 더불어 향후 작은도서관의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1) 2014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등록기준에 준하는 작은도서관은 공립 1,302관, 사립3,932관으로 총5,234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2장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2-1 평가지표의 필요성

공공도서관에 대한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된 이후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좀 더 가까이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요구는 도서관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노동의 형태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삶의 양식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주말 휴무제는 사람들에게 문화향유를 하고자 하는 욕구와 노동력의 재충전을 위한 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도서관이다. 잘 갖추어진 도서관 이용을 통해 가족과 개인이 삶의 재충전을 위한 문화, 여가, 독서활동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할 때 이용자의 편의에 부합하고 모두에게 개방된 정보 자료가 제공되는 도서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으며 그 기능을 요구 받는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수적으로 증대하고 작은도서관의 수도 빠른 속도로 늘어가는 것에는 시대적 요구가 함께 부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적 증가에 맞게 질적인 충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안에 담겨야 한다.

현재 작은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계획은 나오는 것이며 운영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의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지역적 균형 발전과 상호 네트워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를 정기적 과정을 통해 조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작은도서관진흥법 제12조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에는 매년 12월31일까지 작은도서관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의 현황이 파악되고 지원 필요성에 대한 내용 및 예산 확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운영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균적 운영 기준을 세울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이때 현장실사를 기본으로 하는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는 향후 지원에 차등화를 위함이며 별도로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경기도는 2011년 작은도서관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차등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평가지표는 향후 타 자치단체가 평가지표를 만들어 가는데 모델이 되어주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작은도서관의 수와 지원 예산이 다르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상호 발전을 위한 평가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정책이 반영되고 이를 수행하는 실무행정체계가 갖추어져야 기대한 평가의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 운영실태조사와 평가항목

평가항목에 바탕이 되는 운영실태조사는 2014년 통계시스템을 갖추어 2013년 작은도서관 운영결과부터가 반영되고 있다. 운영자가 직접적으로 통계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입하고 향후 자치단체 담당자가 정확한 기재 여부를 실사를 통해 확인하여 보완하고 수정하게 되어 있다. 운영실태 통계시스템을 갖추므로 전국에 존재하고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을 파악할 수 있는 틀이 생겼다고 보여진다.

특히 2012년 작은도서관진흥법 시행 이후 자치단체가 갖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고 이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지표에 틀이 되는 운영실태조사 항목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2항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주체를 포함하여 총 7가지²⁾로 나타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 기본정보, 소장자료, 시설 및 설비, 인력, 예산, 도서관 이용 및 이용자 관리, 작은도서관 교류 협력,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등 8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 2014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공립 작은도서관 평가지표를 만들었다. 인력, 시설, 자료, 예산, 이용자서비스, 교류협력 5개 영역에 25개의 세부영역³⁾을 배점을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해마다 시행하는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중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경영, 인적자원, 시설환경, 정보자원, 서비스로 5개 평가영역에 계획·정책연계, 교류·협력, 인적자원, 시설, 장서, 정보자원 협력, 정보서비스, 독서·문화/정보격차해소, 혁신 사례 및 우수성 등 9개 평가항목에 1,000점 중 정량 800, 정성 200점으로

2) 작은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2항. 조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주체
2. 좌석 수, 시설 규모, 소장 자료 등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3. 정규 직원, 자원봉사자, 사서 등 작은도서관의 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지출 명세에 관한 사항
5. 개관일 수, 이용자 수 등 작은도서관의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6. 다른 공공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다른 공공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2014년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5, p. 145의 자세한 내용 참조 바람.

하여 규모가 작거나 운영인력이 부족한 공공도서관등에도 자체 정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피력할 수 있도록 하고 2015년부터 평가지표의 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공공도서관 범주에 있고 공공도서관과 상호대차 및 기타 네트워크 사업이 확대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공공도서관 평가지표와의 연관 관계 및 기준을 상호 교류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작은도서관 평가항목과 관련하여서는 가장 잘 정비되어 있는 경기도 사립작은도서관 평가지표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총 14개의 내용을 작은도서관 명칭 사용, 목적은 적합성 및 업무지침의 명문화, 예산규모의 적절성, 재정자립도, 연간 대출 권수 및 연간 이용자 수, 개관일 및 개관시간,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 장서수 및 연속간행물 수, 시설 및 설비 영역, 전산 기기, 전담인력 수 및 전문성, 전담인력 교육, 지역사회 교류 협력 및 홍보, 자치단체 자율 조정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나누어 300점을 총배점으로 하여 등급별 기준 즉 A등급 5%, B등급 15%, C등급 30% , D등급 30%, E등급 15%, F등급 5% 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세부 항목 및 기준에 반영된 내용들은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수치를 명시화 한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경기도 사립 작은도서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최고점인 100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작은도서관이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하고 외부에 현판이 있고 있다.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등을 운영하며 모든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하다. 문서화된 업무지침이 있다. 인건비 연1,000만원 이상, 자료구입비 연500만원 이상, 운영비 연500만원 이상을 자체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전체 재정의 40%를 자부담으로 운영하며 후원 및 주민단체의 지원이 있다. 연간대출이 연8,000권 이상이고 이용자 수는 연5,000명 이상이다. 6일 이상을 개관하고 주말 토, 일을 모두 개관하고 있으며 개관시간은 주 40시간 이상이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은 20개 이상으로 실시횟수는 연 50회 이상으로 시군 평가에 의해 문화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으며 공모사업 지원은 9회 이상으로 이중 공모사업 선정 수가 5회 이상이다. 장서수는 비도서를 포함하여 10,000권 이상이며, 연속간행물은 기증을 포함하여 5종 이상으로 연간 장서 증가량은 500권 이상이다. 공간면적은 165제곱미터(50평) 이상이며 24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다. 도서 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며 관리자용과 이용자용이 각각 2대 이상 비치되어 있다.

전담인력 2명 이상으로 한 명은 유급이며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10명 이상이다. 자원봉사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다. 전문적인 교육을

36시간 이상 받았으며 7시간 독서전문 교육 참가하였다. 경기도 축제에 참가하였고 지역문화, 교육활동, 타기관협력행사에 5건 이상 참가하였으며 지역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있다.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4회 이상 활동하고 있다. 5개 이상의 독서동아리를 구성하고 이들은 20회 이상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운영하고 있다. 자치단체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고 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모든 도서관이 최고의 등급을 받을 수 없다. 언제나 지표는 상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지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공립과 사립의 평가지표를 별개로 운영하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된다.

2-3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제기

2014년을 기준으로 작은도서관의 공립과 사립의 비율을 살펴보면 공립은 1,302관으로 전체의 24.9%를 차지하고 사립은 3,932관으로 (75.1%)를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사립 작은도서관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다양한 운영주체에 의한 운영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 중 개인 및 단체의 설립이 29.9%인 1,187관이며 29.8%가 아파트 작은도서관으로 1,173관, 그리고 종교시설 작은도서관이 23.8%인 934관이다.

이는 전국 작은도서관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공공도서관의 부족한 서비스를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도서관 상황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와 운영의 어려움을 내정하고 있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평가지표의 현재적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별로 나타나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작은도서관 조성을 목적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항 3.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을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경우 일반 사립 작은도서관의 평가지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운영 시간과 운영 인력의 문제 등 제반 지표상의 기준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아파트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지표 등이 보다 현실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

견이 제시될 수 있다. 이렇듯 사립작은도서관의 운영평가지표 개발에 있어 운영 주체별 처한 현실적 고민과 내용이 담아 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더불어 종교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립작은도서관의 운영에도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즉 두 가지의 운영시설이 한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가, 운영 주체는 별도로 존재하는가, 운영 책임자 및 담당자가 정확히 그 업무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용자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지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의 등록은 쉬우나 향후 운영이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등록 시 향후 3-5년 정도의 운영계획을 고민해 주고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운영 방침 및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세워주는 준비 과정이 우선 되어야 지금처럼 등록만 하고 운영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등록을 고민하는 초기부터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가 되는 것이 지역별 마련된 평가지표일 수 있다.

운영 주체별 평가지표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평가지표 구성에 있어 평가지표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평가지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안내의 절차가 필요하다.

주로 운영실태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자들이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현장 실사를 거치고 등급을 결정하는 수순에서 바로 운영 주체들의 이해 부족은 향후 평가지표에 대한 불신과 과열된 경쟁만을 지역 안에서 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평가지표 작성의 과정부터 평가지표 개선의 의견등이 반영될 수 있는 공개된 토론의 장 마련이 부족했다.

더불어 작은도서관 운영자 스스로가 점검을 하고 계획 대비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전체 점수에 반영하는 과정이 없다. 자랑할 수 있는 개별 작은도서관의 장점들을 내세울 수 있고 특수성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 스스로 현재의 모습에 대한 진단을 해 보는 과정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갖는 운영의 정체성 및 자부심 등을 고양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평가지표상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제3장 평가지표의 개선방안

3-1. 자체 평가의 틀을 우선 제안한다.

- 목적의 적합성

- 작은도서관의 운영 비전은 명문화 되어 모든 이용자와 함께 회람하고 있는가?
- 작은도서관 운영 철학에 대한 교육을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 지역 사회속에 작은도서관으로 어떤 실천 활동을 하고 있는가?
-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재생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작은도서관의 운영 비전을 담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 이용자 관리

- 회원들의 현재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동아리의 활동 내용이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있는가?
- 동아리와 자원활동가들의 활동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가?
- 새로운 신입 회원과 이용자들을 환대하며 맞았는가?

- 재정 관리

- 1년에 대한 예산 계획과 지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새로운 사업을 위해 비축한 예산은 존재하는가?
- 후원 회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모든 예산의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정산을 위한 필요 서류를 갖추고 있는가?

- 사업 추진

-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 사업의 성과를 사람으로 남기는가?
- 협동의 과정을 통해 만든 사업인가?

- 지역 사회를 향한 열린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가?
- 진행하는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가?

- 지역 네트워크

-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위해 협조하는가?
- 작은도서관과 도서관과의 상호 협조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가?
- 지역사회 제 시민사회 단체와의 공동 사업은 존재하는가?

3-2 평가지표 구성을 위한 평가위원회 마련

작은도서관의 이해를 가진 사람의 시선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무엇을 도울 것 인지를 찾아가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잘못된 부분, 즉 이용자에게 불편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운영실태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평가 기준 마련에 과연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입장과 관점, 바라보는 태도가 충분히 반영되고 토론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는지 지역마다 확인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운영 평가 항목이 개선의 방향이고 기준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에게 공유되고 확인 되어지고 세심한 매뉴얼을 통해 개선의 방향을 잡아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평가 기준의 마련과 운영실태의 현장 조사가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만 맡겨져서는 안된다. 합의된 공동의 평가위원을 선출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 심의를 통해 확정된 안을 공유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또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의지만을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초보 작은도서관 운영자나 여러 기관의 일부 사업쯤으로 인식하고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들에게 올바른 운영 방식을 전하여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작은도서관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평가로 자리 잡아 나가야 한다.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지원이 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될 때 지원의 내용도 폭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작은도서관의 지원금은 만족할 정도가 되지 못한다. 여전히 도서구입비 정도의 지원으로 그치고 있는 지자체도 많으며 작은도서관 지원금이 형식적인 시설 개선 사업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운영지원금은 있으나 용도를 잘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금이 배분되어 지역에

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되는 모범이 나와야 한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의 평가위원회의 활동이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3-3 평가와 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체계의 안정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안되어 왔다. 하지만 행정에서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여건은 현재 많은 부분 부족한 실정이다. 작은도서관 업무만을 총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인력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5,000개가 넘는 많은 작은도서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 업무는 전문화, 특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평가와 더불어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이 개선되었는지 실사를 통해 파악하고 지원을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며 특히 다른 업무와 중복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업무를 맡고 있는 자치단체내 책임자는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총괄 지원할 수 있는 부서(팀)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에 요구되어야 한다.

제4장 결론

평가지표의 개선 항목을 묻는 설문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특정 지역의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 인력과 예산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작은도서관의 인력 문제는 가장 풀어야 할 과제로 선정된다. 운영의 부실 원인으로 찾아지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인력 구조를 갖지 못함에 따라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전문적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역을 이해하고 헌신성과 자긍심을 가지며 사람을 조직해 낼 수 있는 활동가들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인력과 예산이 상호 연계되어 있고 가장 풀기 어려운, 그러나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 과제 앞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힘겨워하고 있음을 설문은 반영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이 이제 조성으로 수를 확대하는 관점에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찾기의 과정으로 돌아서야 하는 시점임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 이

에 운영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지점 또한 인력과 예산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의 방향도 이러한 난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찾아지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활력의 공간, 커뮤니티의 공간, 교육과 향후 안정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건강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지속적 성장도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지표를 돌아보며 경쟁적 구도에서 순위가 매겨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지속 발전 가능한 공공도서관의 한 축인 작은도서관이 안정화되고, 지역 사회가 건강한 시민들로 성장하는 초석이 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지침이 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현황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경기도. 2015년도 사립작은도서관 평가지표

박소희.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의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평가지표에 대한 고찰

작은도서관진흥법

▪ 두 번째

작은도서관 평가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박 미 숙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정책기획 팀장)

목 차

- 제1장 서론
- 제2장 작은도서관을 평가하는 사람들
 - 2-1 누가 할 것인가?
 - 2-2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 2-3 어떤 과정으로 할 것인가?
- 제3장 평가를 당하는 작은도서관
 - 3-1. 어떤 내용으로 당할 것인가?
 - 3-2 어떤 과정으로 당할 것인가?
 - 3-3 자체 평가를 하자
- 제4장 결론

제1장 서론

‘작은도서관을 평가합니다.’

이 말은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든 그렇고 평가를 당하는 입장에서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평가 기준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평가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원으로 받으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를 중심으로 기준을 만들고, 평가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에서 이 정도를 하는 것도 힘들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 평가 기준은 공정해야 한다는 까닭으로 ‘수치화’하기 때문에 ‘정성’ 평가가 아닌 ‘정량’ 평가를 한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그동안 작은도서관을 운영해왔던 가치와 철학까지 이 숫자로 평가되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 방향 자체를 이 숫자에 맞추는 경우까지 생겨난다.

과연, 이런 상황들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을까? 도움이 되고 있다면 모르지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걸까?

제2장 작은도서관을 평가하는 사람들

우선, 평가를 왜 하는 가 먼저 생각해 보자. 작은도서관 평가는 2004년 파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립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에 관한 평가기준’을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해마다 또는 격년을 기준으로 평가를 지속하고 있다.

위에 ‘운영지원에 관한 평가 기준’이라고 적은 것처럼 작은도서관 평가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위한 평가’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차등 지원’이라는 지원의 방향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평가를 하는 까닭은 작은도서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수치화 해서 등급을 매겨 차등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평가하는 까닭을 다시 짚어보는 것은 작은도서관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철학과 방향을 살펴보고 개별 도서관이 잘 운영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서로 인정하고 가야 한다는 것에 있다.

‘관리’의 입장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평가를 하는 입장이나 당하는 입장 모두가 인정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모두가 인정한다면, 과제는 두 가지가 남는다. 평가진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계를 줄이고 갈 것인가?’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작은도서관에서는 관에서 진행하는 평가 기준과 별도로 ‘어떻게 해야 우리 작은도서관이 운영 활성화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에 따른 자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단, 여기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운영지원을 위한 평가’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한계를 줄이고 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해보기로 한다.

2-1 누가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평가는 누가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다. 일단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곳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단위에서 진행해야 한다.

경기도 경우, 작은도서관팀에서 평가 기준을 만들고 각 지자체에서 평가를 진행한다. 대부분 작은도서관 담당자가 작은도서관들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요구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작은도서관에 나가서 진행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파주시처럼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단위가 일정하지 않고 평가를 하는 인력이 제대로 확충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면으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별로 작은도서관 담당자가 있지만, 전담 인력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작년엔 평가를 하는 사람과 올해 평가를 하는 사람이 다르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별로 작은도서관 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평가지표가 만들어지고 평가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2-2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그렇다면, 작은도서관 평가 지표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까? 앞서서도 말했지만, 작은도서관 평가는 기본적으로 ‘운영지원’을 하기 위한 평가이고 그러다 보니 수치화되고 등급화 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같은 지자체라 할 지라도 도서관이 있는 위치에 따라 운영형태와 내용이 다르고, 운영주체가 누군가에 따라서도 도서관 운영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면,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농어촌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수와 대출권수는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무급 자원활동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과 상근 인력비를 지원해주는 시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운영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고, 전문 인력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는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작은도서관을 하나의 기준으로 줄 세우는 것은 불합리한 평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100인 100색 작은도서관 평가 기준을 달리 할 수는 없으니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농어촌 지역이거나 인구 밀도가 낮고 작은도서관 개수가 적은 지역은 등급이 낮더라도 우선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형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경기도 경우, 우선 공사립을 나누어 평가를 한다. 공립과 사립이 운영되는 형태의 평균치를 내서 서로 우선되는 조항들의 점수 비율을 정하고 배점도 다르게 적용한다.

예를 들면, 사립 작은도서관 경우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수와 질에 높게 평가하고 독서동아리에 대한 배점을 높게 주었다. 반면 공립 작은도서관 경우 장서와 이용자 수, 전담인력의 유무 등에 배점을 높게 주어 사립 작은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이 가진 차이에 따른 평가를 진행한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등급이 낮더라도 지원한다.’ 등으로 지원 기준을 달리하여 지역별로 작은도서관이 골고루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에서 실사를 통해 판단하고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정성 평가 배점을 10%로 주어 좋은 가치와 철학을 가진 작은도서관 경우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3 어떤 과정으로 할 것인가?

실제로 작은도서관 평가지표를 만들고 평가를 진행하다보면, 많은 부분 ‘내용’에 힘을 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정’에 좀 더 힘을 기울이길 권하고 싶다.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현실에 맞는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기준들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다음은 작은도서관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평가기준을 만들고 여러 통로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지표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통로와 소통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좋은 평가 지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부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당사자인 작은도서관을 만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평가하고 지원을 하는 곳에서 일방으로 기준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통과 협력을 기본으로 해야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마련될 수 있다.

경기도 사례를 보면, 2011년도 1차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경기도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모두 방문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다음, 다시 여러 기관이 모여 작은도서관 평가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은도서관 평가 지표는 2년에 한 번씩 평가 지표를 바꾸고 그때마다 공립과 사립작은도서관을 나누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평가지표를 확정하는 과정을 갖고 있다.

청주시 에서는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 관련 네트워크와 사전 만남 등을 갖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갖기도 한다. (본 자료집 참고)

이러한 과정은 작은도서관 스스로가 평가기준과 지표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보다 현실적인 작은도서관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제3장 평가를 당하는 작은도서관

대부분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관련 글은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 지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평가를 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며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할까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작은도서관 평가지표’는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중심으로 한 평가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한 평가’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평가 지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3-1. 어떤 내용으로 당할 것인가?

하지만, 평가지표에 담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가장 많이 고민해야 할 단위는 사실 평가를 당하는 작은도서관이다. 이때 중요한 것인 바로 무엇에 중심을 둘 것인가이다.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 갈 것인가? 작은도서관이 그리고갈 ‘미래’를 중심으로 지표를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경기도 사립작은도서관 평가지표에는 인건비 항목이 있다. ‘연 1000만원 이상이면 10점을 주고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미만인 경우 9점이나 8점’을 주는 등을 항목과 배점이 나뉘어져 있다. 현재 작은도서관 현실에서 보면 1,000만원 이상을 주는 작은도서관은 많지 않으니 비현실적이라 하여 항목에서 기준을 낮추는 것이 옳을까? 현재 그렇게 주고 있지 못하지만,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금액인 1000만원에 최고점을 주는 것이 옳을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 도서관을 기준을 삼을 것인가 전체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고민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우리 도서관 기준대로라면 앞으로도 맞지 않지만, 전체 작은도서관 흐름 안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3-2 어떤 과정으로 당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이 작은도서관 평가지표를 만들기 위한 토론과 과정이 필요하다. 광역 단위 작은도서관을 모아 하는 공청회 형식보다는 지역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전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가이다. 항목과 배점보다는 작은도서관 평가지표가 전체 작은도서관 안에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3-3 자체 평가를 하자

이렇게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평가가 아닌, 작은도서관 스스로 자체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원 받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를 점검하고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평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각각 개별도서관에서는 개별도서관에 맞는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고, 지역별 네트워크에서도 ‘작은도서관이 나아갈 바’를 중심으로 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정량 평가 방식’의 평가 지표 뿐 아니라 도 ‘정성 평가’도 이런 평가 지표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도 알려낼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결론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대부분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의미라 할 수 없다. ‘작은도서관’이란 말은 단지 ‘크기가 작다’라는 형용사로서의 의미보다는 ‘운동’과 ‘정신’에 의미를 부여한 고유명사이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 운동이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민간자조 운동인만큼 ‘크다’ ‘작다’라는 규모나 시설의 의미보다는 ‘운동’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하며, 특히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이라는 중요한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국립중앙도서관 발행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에서 -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진흥팀이 ‘작은도서관’을 규정하면서 내린 말이다. 이 내용에는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진 역사와 존재 까닭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작은도서관의 내용도 많이 바뀌었지만, 작은도서관이 가진 특별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가진 철학과 가치를 이해하는 방향에서 작은도서관 평가지표도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평가를 하는 사람도 평가를 당하는 사람도 좀 더 진지하게 작은도서관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그 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진정으로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방향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세 번째 _ 사례

청주시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지표 세우기

오혜자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제 1장 서론

지난 몇 년 사이 전국의 자치체마다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신규 작은도서관 조성계획이 수립되는 등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의 작은도서관은 2011년 45개소에서 일 년도 안 되어 두 배로 늘었고,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한 첫 해인 올해 통합청주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120곳에 이른다.

청주시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조례를 통해 법적 기준보다 다소 높은 20평·2000권의 장서·주 5일 20시간 이상 개관을 최소 지원기준 두고 있다. 청주시는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도서·문화프로그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운영비 항목을 신설해 14개소를 지원했다.

양적으로 늘어난 작은도서관의 수에 비해 주민참여가 높은 작은도서관이 많지 않은 만큼 최소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이 지역과 운영주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 또한 존중되고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실제 작은도서관의 지역적 운영상황에 대해 자치체와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이 상호 의견을 듣고 평가지표를 세우는데 반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 2장 적정한 운영평가지표를 만들기 위한 노력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이하 청도협)는 초기 평가지표가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운영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작년부터 청주시와 여러차례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청도협은 평가지표에 대해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실무자의 개별 의견을 모아 항목별로 정리하고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제안한 내용에 대해 청주시는 의미 있게 수용하고, 올해 평가지표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2014 운영평가지표에 대한 항목별 작은도서관들의 의견〉

2-1 인력

-전담인력+사서자격증 부분은 작은도서관의 현실에 비추어 과하다. 현재로서는 전담인력의 유무만으로도 해당되는 작은도서관이 많지 않다.

-무급자원봉사자 인원수에 따른 운영인력의 탄력성 평가 필요, 도서관의 자생 능력도 포함되는 부분임. 유급과 무급, 인원수 세분화 필요

2-2 도서관 운영

-주 5일 이상 및 1일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개관, 주간 20시간 이상 개관 등으로 세분화

-도서관 운영 형태 반영필요 : 운영규칙 유무,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여부, 도서관장 임명 여부 및 부여된 권한의 범위 등 도서관 설립 기관의 관심도 및 체계화 측정 필요

2-3 공공도서관네트워크

-공공도서관과의 협력과 함께 작은도서관네트워크 활동 포함 필요

-지역사회네트워크 포함 : 지자체 및 평생학습관, 교육부, 문체부 등 관련 사업 참여도

2-4 예산

- 연간 총운영비 항목에 도서구입비와 인건비 구분 제안
- (아파트도서관의 경우 대표회의 측에 지원내용을 명확히 구분해 주는 것이 필요. 인건비 월20만원, 40만원, 50만원.. 도서구입비 월10,20,30 등)

2-5 자료확충

- 신간구입과 기증도서의 양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기준이 불합리함.
- 총 증가자료 증가로 평가필요. 총 증가분 기술 후 각각 해당되는 기증·구입 항목을 넣어 도서자료수를 기재.
- 증가 책수 평가기준이 과하다.
- 공간 대비 일정 도서자료를 갖추고 이후 제적폐기하여 감소하는 도서양 측정치 포함 필요

2-7 자료대출

- 평균이용자수 : 이용자수 집계불가(이용자수 계량화 방법 제시필요, 대출자+ 프로그램 및 행사 참가자 등의 근거자료를 통해 계량 제안)
- 일일평균대출권수의 평가기준도 애매하다(운영일수에 영향 받음)

2-8 홍보

- 홈페이지나 소식지, 카페, 밴드 운영여부 등 홍보내용에 따른 탄력적 방법 적용과 이를 반영하는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작은도서관 현황과 함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안

2-9 프로그램 운영

- 1,2,3개 강좌로 구분하는 것은 변별력이 떨어짐
- 일시, 상시 개설된 프로그램의 구분이 없다
- 마을도서관축제나 연합행사 등에 대한 기준도 필요

-독서동아리와 취미동아리 등 자발적인 주민활동을 권장하는 기준도 필요하다

〈2014년 운영평가지표에 전반에 대한 청도협의 의견〉

- 청주시 작은도서관들의 운영현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 실태를 잘 아는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류상의 가짜 정보를 구분하기 어렵다
- 도서 관리 프로그램 보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대안필요
- 도서관별로 개관 시기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전년도 대비 발전적인 부분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순회사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작은도서관 유경험자 및 실무자를 파견해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독서문화영역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용자는 많으나 장서가 부족한 곳은 장서를 확충해주고, 프로그램운영이나 사업 참여가 안 되고 있는 곳은 전문가를 파견해서 참여방법이나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지도해주고, 인근 마을 도서관이 연합이 되게 하여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권장하는 의미를 담은 평가와 지원이 되어야 한다.
- 평가지표의 활용이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 청도협의 의견 반영 및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함.

〈2015년 운영평가지표 반영내용과 2016년 계획〉

도서관운영일수와 시간을 세분화하고, 지역네트워크 평가 항목에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와 지역사회네트워크 항목이 추가되었다. 자료 확충의 부분도 총 증가 권수로 기준을 조정, 동아리활동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 운영위원회 구성, 연간운영계획 수립 여부 등 작은도서관의 의견을 반영한 항목이 추가되었다.

청주시가 올해 지원항목에 운영비 지원을 신설하고 점차 예산을 늘여나가고자 한 것에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개별 도서관에 지원되는 운영비를 확대하는 것보다 지원대상도서관 수를 늘려 나갈 것에 의견을 모아 주

문했다.

10월 29일 청주시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을 통해 운영평가지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운영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청도협은 아파트도서관, 기관 내 도서관, 주제도서관 등 영역을 나누어 사전에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적절한 지표를 세우기 위해 준비 중이다.

대상이 되는 평가가 아니라 작은도서관의 공동체성과 자생력을 키우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로 자치체와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전국의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의 운영 지원 및 컨설팅, 협력과 교류를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 어린이책 연구,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도서관 수탁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책 문화,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의 운영 지원 및 운영 컨설팅을 합니다.

작은도서관 · 어린이도서관이 마을에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교육, 장서, 책문화 콘텐츠를 지원하고, 운영 컨설팅을 합니다.

■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의 운영자와 실무자 양성 교육을 합니다.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작은도서관의 조직,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관리, 책 문화프로그램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도서관학교와 워크숍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실무자를 재교육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갑니다.

■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에 관한 연구와 자료 발간을 합니다

1999년 『어린이도서관 현황』

2005년 『어린이도서관 현황 자료집』

2006년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 (사)어린이와 도서관』

2007년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있다』,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

2008년 『도서관에 엄마가 있다 : 품앗이를 위한 도서관학교』

2010년 『도서관의 어린이자료 선정기준에 관한 해외 문헌 및 사례 연구』

2010년 『전국 어린이도서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현황과 과제』

2013년 『작은도서관의 이해와 실제』

2014년 『작은도서관 운영메뉴얼』

2014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 다양한 독서 및 도서관 사업을 진행합니다

○ 도서관 책꾸러미 돌려보기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보조사업

농어촌, 도서벽지 등 책과 만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전교생 150명 이하의 학교에 책 돌려보기, 작가와의 만남 등을 진행하여 책읽기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보조사업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 어린이에게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입니다.

○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 서울 아름다운가게 배분사업

서울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이 독서 및 도서관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마을의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마지막 수요일엔 작은도서관 푹푹’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 사업

전국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작가 및 독서 문화예술 강사들을 파견해주는 사업

○ 작은도서관 책친구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보조 사업

전국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주 2-3회 독서활동가가 독서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